

조용미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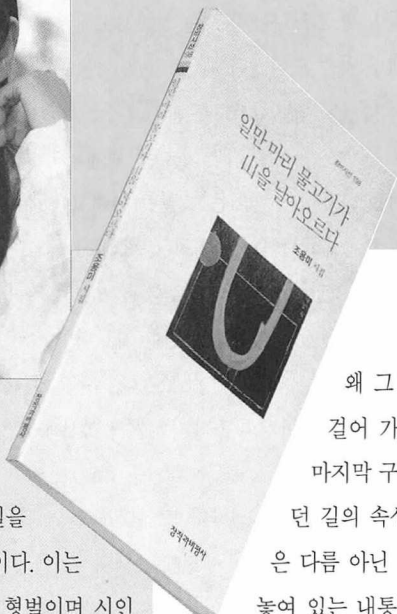
창작과비평사/B6변형/118면/5000원

시인이라 천성적으로 집보다 길을 더 편히 여기는 특이한 '부족'이다. 이는 곧 하늘이 시인된 자에게 내린 형벌이며 시인이 저야 할 운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형벌을 달게 받는 자이니, 시인이라 무릇 길 위에서 잠 자고 밥 먹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조용미 시인(38) 역시 이 가혹한 운명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고행승

“그냥 못 견디기 때문에 가는 거죠. 쉬러 가거나 무언가에 대해 알려고 가는 여행은 아니에요. 집에 있다보면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생겨요. 그곳에 못 가면 병이 나오. 며칠씩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곤 하죠. 요즘엔 흑산도에 가보고 싶네요. 정약전의 글을 읽다가 문득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서, 검은 물빛을 보고 싶어요.”

그가 펴낸 시집 《일만 마리 물고기가 산을 날아오르다》(창작과비평사)는 길에 관한, 그리고 길 위에서 있는 사람에 관한 시집이다. 시집의 첫장을 여는 시 〈겨울 오동나무〉의 첫구절은 “지난 겨울 어디에서나 내 가는 길 끝에 오동나무가 서 있었다”라는, 여행에서 돌아온 자의 회고로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가 걸었던 “오동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낯선 길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는



왜 그 길을 “고행승의 얼굴”로 걸어 가야만 했던 것일까.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다보면 그가 걸었던 길의 속성이 자명해지는데, 그 길은 다름 아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놓여 있는 내통문’이다. 따라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놓여 있는 비밀을 엿보며 길을 가는 시인의 얼굴은 당연히 고통스러운 수밖에 없다.

“시집을 내고 어느 순간까지 내가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도차 몰랐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시에서 죽음을 읽어내더군요.”

죽음에 관한 이런 인식은 그의 몸에서 비롯됐다. 몸이 아프면 시 역시 아픈 법. 아픈 몸에서 아프지 않은 시가 나올 수는 없다. ‘한 시간 앓아 있으면 두 시간은 누워 있어야 하는 지독한’ 병을 앓고 있는 그의 몸은 폐허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폐허를 더듬으려면 / 내 몸 구석구석을 만져보”라고 태연하게 말할 정도로 그는 이미 육신의 고통에 담담해져 있다.

“내 몸은 내 시의 텍스트다”

“어느날 심하게 아프고 나서 일기를 들춰 보는데 ‘내 몸은 내 시의 텍스트’라고 써 놓은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앞으로는 내 몸을, 내 몸에 깃들여 있는 고통을 더 잘 읽어볼 작정이예요.”

삶의 비의 옛본 시인의 고통

《일만 마리 물고기가 산을 날아오르다》 펴낸 조용미씨

“그냥 못 견디기 때문에 가는 거죠. 쉬러 가거나 무언가에 대해 알려고 가는 여행은 아니에요. 집에 있다보면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생겨요. 그곳에 못 가면 병이 나오. 며칠씩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곤 하죠. 요즘엔 흑산도에 가보고 싶네요. 정약전의 글을 읽다가 문득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서, 검은 물빛을 보고 싶어요”

그는 한동안 시를 완전히 놓아버린 때가 있었다. 20대 시절이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느 마을에서 4년 정도 지낸 적이 있었는데, 시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때를 ‘삶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대형 쓰레기통 앞에 누군가가 분필로 시를 써 놓았던군요. 아주 유치한 시였죠. 하지만 그 시를 읽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꼬박 한 시간 동안 그 앞에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는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열번 정도 시의 순서를 바꾸고 시를 다시 손질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시 〈어비산(魚飛山)〉은 한번도 자리가 바뀌지 않았다.

“《삼국유사》를 읽다가 어비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벼락이 내 몸을 꿰뚫고 가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그후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삼사일 그렇게 앓다가 어느 선생님께 어비산 이야기를 했죠. 그 선생님께서 등에 산이 솟아오른 태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피를 토하듯 시를 썼고 그 후 안정을 찾았죠.”

〈어비산〉에 나오는, “뱀을 사여 제 몸 밖으로 산 하나를 밀어”낸 물고기는 혹 그가 아닐는지, 그리고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아도 등에 돋어난 죄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뱌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인의 운명이 아닐는지 모를 일이다. - 최갑수 기자